

법회안내

천운스님(대운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약사재일 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법회. (062)375-7600

도일스님(지지사 수성포교원 주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정기법회 <화엄경>강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불교대학 강의,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30분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 법회. (0353)55-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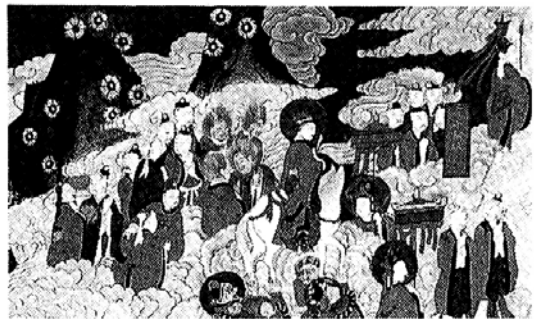
영도스님(심원사 주지) 1일부터 49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철야 조상천도 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법회. (0353)55-3468

인경스님(천불암 주지)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관음재일 법회, 매월 음력 지장재일 법회, 매월 음력 5일 큰스님초정법회. (0417)557-3223

재연스님(무량선원 주지) 8일 오전 10시 부처님 집안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보름법회, 매월 음력 10일 가족법회 기도교리강좌. (062)971-8626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사랑하는 처자와 왕위를 버리고 성을 떠나 출가하는 석가모니.



◇시리생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6일 출가절 13일 열반절 불자 경건주간

출가학교·발우공양·성지순례·철야정진 등 마련

파사로운 햇살과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 이렇듯 유트는 봄기운속에 부처님 출가절과 열반절이 돌아왔다. 출가절인 6일부터 열반절인 13일까지는 불자경건주간. 부처님 출가·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법회, 강좌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동참을 기다린다.

봉은사(주지 무상)는 6일~13일까지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 기도 및 108참회 법회'를 매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매일 낮 12시에는 '발우공양체험'도 신청자에 한해 실시한다. 또 저녁 7시~9시에는 '특별산신법회'를 열어 직장인들도 동참할 수 있다. (02)545-1448

부산 반야사(주지 성모)는 '제3회 열반경 산신법회'를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계속한다. 중범스님, 지안스님, 한파스

님 등이 매일 오전 10시~12시 강의한다. (051)646-6237

통도사부사산포교원(원장 심산)은 6일부터 13일까지 오후 7시 '자비도량 찬법기도'를 봉행한다. 이번 기도법회는 명예퇴직, 해고 등으로 마음이 위축된 자사들에게 위안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051)816-2241

강남포교원(주지 성열)은 6일~13일 '경건주간 참선수행'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까지 기도정진을 하고, 12시30분~3시30분까지는 참선의 기본자세와 참선 실수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539-2631~4

경남 창원 관음정사(주지 해선)는 6일 오전 10시 '서운 큰스님 초청출가재일 참사람 대법회'를 마련했다. 큰 스님의 감로 법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551)87-0930

조계사(주지 현근)는 6일~13일까지 '출가열반재일 법회'를 연다. 6일 현근스님, 7일 향적스님, 8일 무진장스님, 9일 암도스님, 10일 중범스님, 11일 일초스님, 12일 중범스님, 13일 현근스님등이 법문한다. (02)732-2115

구룡사(주지 정우)는 6일~13일까지 '발심정진기도법회'를 매일 아침 9시에 봉행한다. 108배와 <금강경>사경 등을 함께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계획. (02)575-7766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6일 새벽 6시 강원도 태백 정암사 적멸보궁으로 사찰순례 겸 기도법회를 떠난다. (02)932-2333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홍제법당과 서초 법당에서 6일~13일까지 불자들을 위한 '8일 출가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밤10시까지 1천배 기도정진, 발우공양, 참선 등을 비롯 부처님일생·예불문 등에 대한 강의도 한다. 8일간 법당에서 상주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 (02)379-1650, 582-1080

육주사(주지 현엽)은 14~15일 '1박2일 출가학교'를 연다. (051)971-0042

출가 새 풍속도

가족이 입산 적극 권유 수행 뒷바라지도 앞장

최근 몇년사이 부모와 가족들을 비롯 주위의 축하 속에 출가를 단행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확산되고 있다.

출가에 대한 인식이 세속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위한 성스러운 불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부산 비사찰의 00스님의 경우 어릴 때부터 모친이 출가할 것을 권유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게 할 정도로 스님의 출가를 적극 후원했다. 이유는 "자식을 출가사문이 되게 하는것이 세세생생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친은 외아들을 출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재를 보시하고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불제자로서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또다른 불자의 길을 걸고 있다.

또 행자교원들을 비롯 졸업식장에 스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가족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6일 동국대 졸업식장에는 출가한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가족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은사스님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은 한 사미스님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출세간의 인과를 무분별하게 망각해서는 출가본의에 어긋난다"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도 "수행에 매진해 깨달음을 얻어 많은 중생을 교화시킬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관

✦ 인사

(02)806-1375~7 △한국사찰음식연구소 개원=사찰음식연구가 이어영씨가 지난달 20일 중로구 동승동 21-2호에 한국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했다. (02)747-8734

✦ 알림

△참고서 바꿔쓰기=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근배)은 3월 말까지 초·중·고등학생 등이 사용하는 참고서, 학습교재, 학습용 바꿔쓰기 행사를 마련했다. 복지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을 대상으로 사진강좌를 개설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4일부터 개강한다. (051)866-6967 △기초교리·의식=평생불자회(회장 김정호)는 불교 기초교리와 의식 등을 무료로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을 증명법사로 한정법사, 장익교수 등이 지도한다. 개강은 7일 오후 3시. 6일까지 신청순 마감. (02)507-4008

✦ 모집

△기체조=인천 자비의전화(회장 무철)는 매주 월요일 오후 2

시30분, 오후 6시 기체조교실을 열고, 수강생 모집. (032)884-0118

✦ 답사

△화엄사·삼성궁=국토문화순례 터사당(대표 전숙희)은 7일~8일 지리산 화엄사, 삼성궁, 운조루 등지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참가비는 5만원. (02)725-1284

✦ 이진

△해초여행사(대표 심상돈)는 16일 중로구 관철동 43-8 대한방직빌딩 902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그대로 (02)733-3900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서울사무소를 종로구 관훈동 198-16번지 남도빌딩 406호로 이전했다. 전화는 그대로 (02)730-0798

✦ 학육

△본사 부다피아 최정근씨가 8일 일요일 낮 12시40분 대전 신신동장석역 2층 백합홀에서 김정은양과 화혼을 밝힌다. △불교신문사 장용준기자가 8일 일요일 오후 2시 인천 주안 고려예식장 1층 특실에서 이종임양을 신부로 맞는다.

나의 수행일기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 교장)

이른 아침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불교방송 새벽예불과 함께 하루를 준비한다. 예불과 함께 108배를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내 수행생활의 기초가 된다.

'목숨은 짧고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항상 현실에서 비취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젖은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걸치장에 치중하는 걸출기 인생을 멈추고 '8일 출가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밤10시까지 1천배 기도정진, 발우공양, 참선 등을 비롯 부처님일생·예불문 등에 대한 강의도 한다. 8일간 법당에서 상주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다. (02)379-1650, 582-1080

“청소년에 절약정신 심자”

부모님 염불정진에 감화 매일 108참회

성, 참회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였다. 1940년대 대전에서 인쇄업을 하였던 부모님은 오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속리산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두 분은 늘 염불정진을 생활화하셨다.

부모님의 염불정진은 어린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염불은 내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잡았고, 이같은 가정환경속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친형이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를 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이뤄진 듯 싶다.

어린시절 형님인 해성스님을 따라 다니며 참회정진으로 기도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 여름방학 한철을 기도에 전념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 하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꾸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한가지,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늘 참회수행 정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나는 매일아침 예불과 108참회로 나의 일상을 정돈하고, 또 다듬는다. 그리고 해성스님이 계신 지장사에서 때때로 기도정진을 하기도 한다.

내가 불교종립 청담종합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부처님의 그늘아래서 살아가 수 있는 것도 모두 부처님의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6·25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리국토에 중등 공교육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청담스님의 뜻을 받들어 불자들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세운 것이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청담학교다. 청담학교는 탐을 씹아가듯 한층한층 만든 검약의 상징이요,

원력수행의 학교라 할 수 있다.

인스턴트문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비로운 덕성을 지닌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내 수행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민족의 열과 정진 그리고 근검절약의 정신을 투철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일차적 소명이다. 실천수행법이다. 이를 위해 나 자신부터 자족(自足)의 철학, 청빈의 덕을 되새기면서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

열심히 노력하기를 즐기며,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락하는 일이 없이 이미 열반 가까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歴史는 바뀔 수 있어도 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가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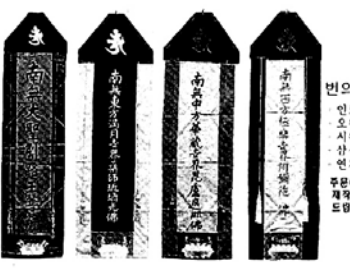


“사절에 幡(번)은 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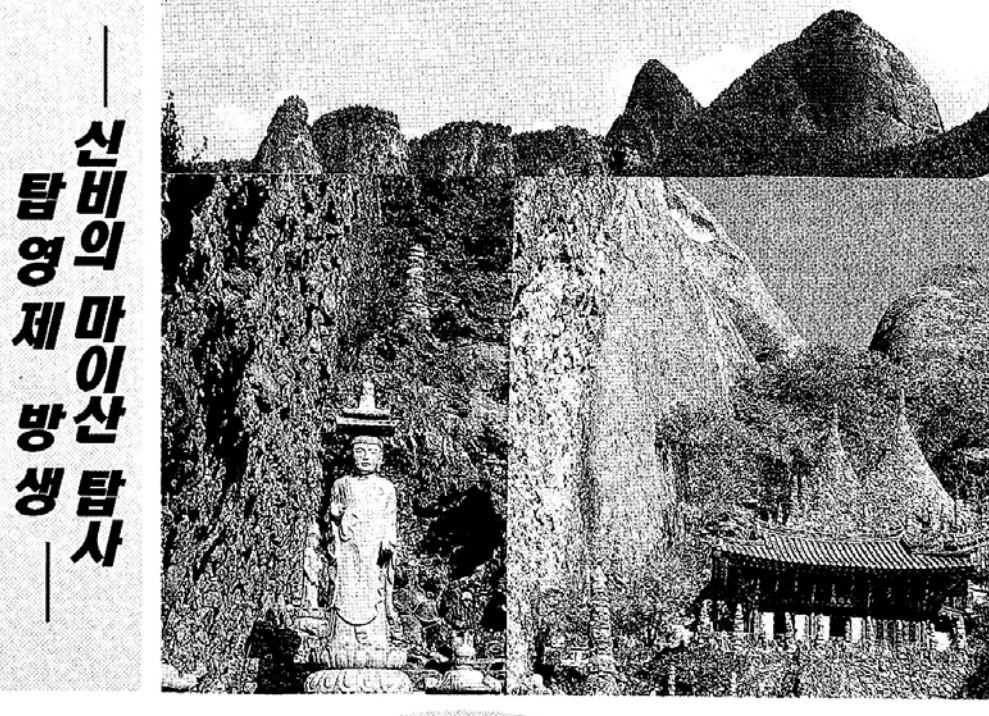
시연(侍儼)은 각종 제(齋)에 필수적인 장엄의식구로서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4년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 동시에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절에 幡(번)은 필수품입니다.”



불 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幡은 화려한 공단과 섬세한 자수로 전통의식 幡 그대로를 재현하여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예술적 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